

찬송가 301장 (통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뿔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559장 (통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024년

추석

가정예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장 1절)

예배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2.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3. 예배순서(대표기도/성경봉독)는 가족들이 골고루 맡아서 하면 좋습니다.
4. 예배순서는 가정의 신앙 사정에 따라 간소하게 생략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5.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음식을 먹으며 가족 간 교제를 나눕니다.

※ 상차림을 하고 절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예식사 인도자

지금부터 추석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01장(통460) 다같이

-뒷면에 표기-

기도 가족중

성경봉독 창세기 50장 18~21절 인도자

-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 추석엔 용서하세요. 인도자

기도 인도자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게 됨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가정의 복음화와 화목, 문제해결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 559장(통305) 다같이

-뒷면에 표기-

주기도문 다같이

추석엔 용서하세요. (창세기 50:18~21)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친 형제들은 앞다투어 요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동생의 눈치를 봅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복수의 피바람이 불지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19)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20)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선하게 바꾸셨고 이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요셉은 형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불화(不和)와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자기 살기 위해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야곱으로 이어지는 편애의 역사,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까지…… 창세기는 그렇게 인간의 불화와 갈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용서’를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비록 불화와 갈등으로 충만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해 해묵은 은원(恩怨)을 털어내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추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용서입니다. 그동안 차마 말하기 어려웠던 일, 서운했던 일, 아쉬웠던 사연들을 진솔히 나누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서로를 함께 보듬어 안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불화를 용서와 화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용서와 화해가 보름달 같이 충만한 추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